

## 문항카드 ① <인문계열 1회차 1번 문항>

### 1. 일반정보

|                      |   |                          |
|----------------------|---|--------------------------|
| 유형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                          |
| 전형명                  | 202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  |                          |
|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 인문계열(1회차) / 문항 (1-1, 1-2)   |                          |
| 출제 범위                | 교육과정 과목명  | 통합사회, 사회·문화, 정치와 법       |
|                      | 핵심개념 및 용어   | 환경 문제, 사회 불평등, 지속 가능한 사회 |
| 예상 소요 시간             | 50분 / 전체 100분   |                          |

### 2. 문항 및 자료

#### 계 열 문 항 1

<가> 미국과 중국은 경제 규모가 큰 만큼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다. 2014년 두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 한도 설정, 더욱 깨끗한 에너지 연구, 에코-스마트 도시 계획, 수소불화탄소 사용의 단계적 축소 등에 대한 협력을 약속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여 국제적 책임에 대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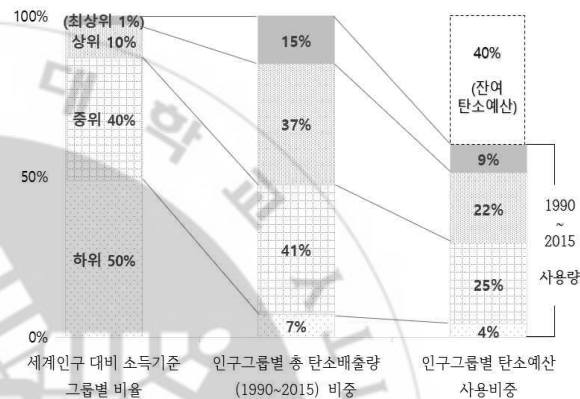
두 국가가 주도하는 이러한 전략은 구체적으로, 전기자동차, 염수 농업, 탄소 포집(carbon capture)과 재사용, 태양열 발전, 자기부상열차, 도시 생태학, 배양육과 같은 새로운 기술 개발에 집중되어 있다. 예를 들어, '지구공학'이라 불리는 기술 중 '역배출 기술(NETs, Negative Emission Technologies)'은 공기 중 탄소 저감을 위한 탄소 포집과 저장 기술로 기후위기 대응 기술의 중요한 축이다. 또한 동물의 사육 없이 배양육을 생산하는 기술만으로도 큰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96% 낮추고, 에너지 사용을 45% 절감하며, 토지 사용의 99%, 물 사용의 96%를 절약할 수 있다. 그리고 두 국가는 탄소세와 탄소 배출 허용 한도에 대한 정책 수립, 벌채 감축, 산업 효율성 향상, 열병합 발전 및 쓰레기 재활용,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정부보조금 전환 등의 정책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 정책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기술 개발과 그를 통해 새로운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태양열과 풍력 발전을 중심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전력 공급 안정과 경제적 효율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에 대해서도 기술 발전에 의한 극복 방향이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Elon Musk)는 '솔라루프'와 '파워월' 등 태양광 기술의 발전과 배터리 에너지 저장 기술을 결합하는 솔라시티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추진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기후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포괄적 개발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경제 성장을 가속하면서도 기후변화에 대응할 만큼의 지혜가 있다. 우리는 세계 기후변화에 관해 더 나은 결정을 지원하고 현상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집단지성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나>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 세계적 보건 및 경제 위기 속에서도 기후위기 문제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 발생한 사이클론 암판부터 미국의 견잡을 수 없는 거센 산불까지 극심한 기후재앙은 멈추지 않고 있다. 이는 전 세계가 합의한 파리 협정의 '1.5도(°C) 목표'(지구온난화의 임계점)를 초과하기 직전일 정도로 위험한 상태임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가 되고 있다. 옥스팜(Oxfam)과 스톡홀름 환경연구소(SEI)는 최근 연구를 통해 수십 년간 지속된 극심한 탄소불평등이 아마도 이러한 기후위기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1990년에 비해 2015년의 연간 탄소배출량은 60% 증가했고, 이 기간 동안 누적 배출량은 2배 증가했다. 향후 배출량이 큰 폭으로 줄지 않는 이상, 2030년에는 탄소예산\*이 모두 소진될 것이다(<그림 1> 참조).

이처럼 지난 2~30년 동안 기후위기는 심화되어 왔으나,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된 탄소예산은 사람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사용되기보다는 부유한 사람들의 소비를 늘리는 서비스에 허비되어 왔다. 탄소불평등은 이렇듯 내일 당장 다른 모든 사람들이 탄소배출량을 0으로 줄인다고 해도, 부유층이 사용하는 탄소배출량만으로도 몇 년 안에 탄소예산을 완전히 고갈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 불평등으로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은 기후위기에 가장 책임이 없는 두 집단이다. 바로 오늘날 이미 기후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고갈된 탄소예산과 기후 붕괴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지구를 물려받을 우리의 후손들이다.



<그림 1> 옥스팜과 SEI의 '탄소불평등' 연구결과

따라서 각국 정부는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소를 정책의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라는 슬로건 아래 불평등한 경제 성장을 지속하여 탄소불평등 해소에 실패한다면, 이는 통제 불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기후위기의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다. 구체적으로는 대형 SUV 차량,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편, 개인 전용기 등에 고급탄소세를 부과하는 것부터 디지털 및 대중교통 인프라 확대에 이르기까지, 공공 정책들을 통해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불평등을 해소하며 공중보건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 탄소예산: 산업화 이전과 비교하여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특정한 정도로 제한하고자 할 때 배출이 허용될 수 있는 누적 온실가스 배출 총량. 2015년 파리협정과 2018년 '1.5도 특별보고서'에서 채택된 1.5도를 기준으로 탄소예산을 추정함.

<다> 케이트 레이워스(Kate Raworth)의 이론은 한 가지 질문에서 출발한다. '경제학(economics)'이라는 말은 원래 '살림살이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레이워스는 이 개념을 21세기를 살고 있는 인류와 지구 전체의 살림살이로 확장한다. 즉 '지구의 생태적 한계를 고려했을 때, 어느 수준으로 경제가 발전해야 인류 전체가 번영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며, 이에 답하기 위해 '도넛 경제 모델'을 제시한다. 레이워스는 가운데 구멍이 뚫린 도넛의 비유를 통해 지구라는 도넛 위에서 인류가 생존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미래 세대까지 번영하려면 지속 가능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려면 현재 세대는 일정한 한계 내에서 생활해야 한다. 그 한계가 도넛의 바깥쪽, 즉 '지구 한계' 개념에 근거한 '생태적 한계'이다. 근대 이후 인간의 활동은 지구의 생명 유지 시스템에 미증유의 압박을 주고 있

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홍수, 가뭄, 태풍, 해수면 상승, 그리고 대기오염과 플라스틱 오염, 생명 종의 멸종에 따른 생물 다양성 손실 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또한 현재 세계인구는 2050년에는 100억 명에 달하며 세계 경제 규모는 거의 지금의 세 배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건설 자재와 소비제품 수요, 그를 지탱하는 에너지 수요도 급증할 것이다.

한편 도넛의 안쪽은 물, 식량, 소득, 교육, 보건, 에너지 등 기본적인 '사회적 기초'이며 그것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생활한다면 인류는 결코 번영할 수 없다. 사회적 토대가 결여되었다는 것은 자유롭고 좋은 삶을 위한 '잠재 능력'을 발휘할 물질적 조건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한 사람들이 타고난 능력을 온전히 꽃피우지 못한다면 '공정'한 사회 역시 일궈낼 수 없다. 개발도상국 사람들은 경제적 불안정성과 불평등 상황에 놓여 있으며, 2008년 금융위기로 수백만 명이 일자리, 집, 저축, 안전을 잃어 국제적 불평등 구조는 심화되고 있다.

게다가 '생태적 한계'와 '사회적 기초'는 전 지구적 과정으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대표적인 예로, '생태적 한계'에 대응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가운데 전기자동차를 들 수 있다. 그런데 그 필수 원료인 리튬 채굴은 칠레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담수를 고갈시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주민의 일상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대안인 전기차 보급의 확대가 칠레 현지의 주민에게는 생존권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개발도상국가들이 떠안은 이러한 '사회적 기초'의 파괴에 대해 그들은 대처할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21세기 현재 인류의 장래를 만들어 나갈 흐름이다. 이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우리 인류에게는 어떤 사고방식이 필요할까? 레이워스의 '도넛 경제 모델'은 이처럼 '사회적 기초'와 '생태적 한계'가 균형을 이뤄 발전하는 사회 모델만이 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1-1. <가>와 <나>에서 제시한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의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300±30자)**

**1-2. <다>와 <그림1>을 활용하여, <가> 주장의 한계에 대해 설명하시오. (600±60자)**

### 3. 출제 의도

이 문제는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우리가 사고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 묻고 있다. <가>에서는 지구 위기에 대한 기술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각국 정부는 기술을 개발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옥스팜(Oxfam)의 보도 자료로서, 기후 위기는 1990년~2015년 사이 급격하게 악화되었으며, 그 주요 원인이 소득 기준 탄소배출량의 극명한 차이를 의미하는 '탄소불평등'에 있다고 고발한다. <다>는 '도넛 경제 모델'의 설명인데, 이는 인간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조건으로서 지구라는 '생태적 한계'와 불평등 해소 등 '사회적 기초'가 반드시 균형을 이루어야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국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가>는 기술개발과 지원 정책, <나>는 탄소불평등 해소, <다>는 환경과 윤리의 균형에 주장의 핵심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학생들은 동일한 대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를 묻고자 했다.

#### 4. 출제 근거

##### 가) 교육과정 근거

|  |  |  |
|--|--|--|
| 적용 교육과정  | 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중 통합사회<br>2.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중 사회·문화<br>3.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중 정치와 법   |  |
| 관련 성취기준  | 1. 사회과 교과과정  |  |
|  | <p style="text-align: center;">과목명: 통합사회</p> <p style="text-align: right;">관련</p>  |  |
|  | <p>(1)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br/>         [10통사01-01]에서는 인간의 삶을 이해하기 위한 ‘통합적 관점’은 하나의 사회현상에 대한 시대적 배경과 맥락, 장소와 영역 및 네트워크 등의 공간 정보, 사회 구조 및 제도의 영향력, 규범적 방향성과 가치 등을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의미한다.<br/>         [10통사01-02]에서는 행복의 기준이 시대적 상황과 지역적 여건 등에 따라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는지를 찾아내고, 이들을 비교·평가함으로써 행복의 진정한 의미를 성찰할 수 있도록 한다.<br/>         [10통사01-03]에서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질 높은 정주 환경의 조성,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안정, 시민의 참여가 활성화되는 민주주의의 실현, 도덕적으로 행위하고 성찰하는 삶 등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들을 균형 있게 다루도록 한다.</p> | <p>제시문<br/>&lt;가&gt;, &lt;나&gt;, &lt;다&gt;</p> |
|  | 2. 사회과 교과과정  |  |
|  | <p style="text-align: center;">과목명: 사회·문화</p> <p style="text-align: right;">관련</p>   |  |
|  | <p>(9) 미래와 지속가능한 삶<br/>         [10통사09-02]에서는 지구적 차원에서 사용 가능한 자원의 분포와 소비 실태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을 중심으로 다룬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은 경제,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가 균형 있게 성장하는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성장에 있음을 고려하면서 개인적 노력과 제도적 방안을 다루도록 한다.<br/>         [10통사09-03]에서는 정치적·경제적 문제에 따른 국가 간 협력과 갈등,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공간과 삶의 변화, 생태 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미래 지구촌의 변화 양상을 예측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미래 삶의 방향을 자신이 지구촌의 구성원이라는 점과 관련지어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p>  | <p>제시문<br/>&lt;가&gt;, &lt;나&gt;, &lt;다&gt;</p> |
| 3. 사회과 교과과정  |  |  |
| <p style="text-align: center;">과목명: 정치와 법</p> <p style="text-align: right;">관련</p>   |  |  |
| <p>(6) 국제 관계와 한반도<br/>         [12정법06-01]에서는 오늘날 국제 관계의 변화를 세계화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국제 사회에서 국제법이 지닌 의의와 한계를 국제 분쟁 해결의 주요한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한다.<br/>         [12정법06-02]에서는 국제연합, 국제사법재판소 등 국제기구들이 다양한 국제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과 활동을 수행하는지를 탐색한다.</p> | <p>제시문<br/>&lt;가&gt;, &lt;나&gt;, &lt;다&gt;</p>   |  |

나) 자료 출처

- 교과서 외 자료를 활용한 경우

| 교과서 외                                |            |                      |       |         |                   |        |
|--------------------------------------|------------|----------------------|-------|---------|-------------------|--------|
| 자료명(도서명)                             | 작성자(저자)    | 발행처                  | 발행 연도 | 쪽수      | 관련 자료             | 재구성 여부 |
|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                        | 마이클 셸러버거   | 부키                   | 2021  | 358-385 | 제시문 <가>           | ○      |
| 『유엔미래보고서』                            | 박영숙, 제롬 글렌 | 교보문고                 | 2016  | 280-284 | 제시문 <가>           | ○      |
| 『탄소불평등에 직면하다-기후정의, 코로나 19 위기 극복의 핵심』 | Oxfam      | Oxfam Media Briefing | 2020  | 보도자료    | 제시문 <나><br><그림 1> | ○      |
| 『도넛 경제학』                             | 케이트 레이워스   | 학교재                  | 2018  | 12-14   | 제시문 <다>           | ○      |
|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 사이토 고헤이    | 다다서재                 | 2021  | 104-106 | 제시문 <다>           | ○      |

| 관련 교과서 근거 |       |       |       |         |         |        |
|-----------|-------|-------|-------|---------|---------|--------|
| 도서명       | 저자    | 발행처   | 발행 연도 | 쪽수      | 관련 자료   | 재구성 여부 |
| 통합 사회     | 구정화 외 | 천재교육  | 2018  | 62-63   | 제시문 <가> | ○      |
| 사회·문화     | 김영순 외 | 교학사   | 2018  | 200-202 | 제시문 <나> | ○      |
| 정치와 법     | 김왕근 외 | 천재교과서 | 2018  | 190-193 | 제시문 <다> | ○      |

5. 문항 해설

■ 제시문 요약

**제시문 <가> : 박영숙·제롬 글렌 『유엔미래보고서 2050』 교보문고, 2016, 280-284쪽  
마이클 셸러버거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 부키, 2021, 358-385쪽.**

<가>는 기후위기에 대해 미국과 중국 등의 국가가 대응하는 방향에 대해 논하고 있다. 탄소 포집과 재활용 기술과 신재생에너지 기술 등에 대해 기대하고 있으며, 국가 정책은 그러한 기술 개발 및 기업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러한 방향에 대해 집단 지성에 의한 인류의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낙관하고 있다.

**제시문 <나> : OXFAM MEDIA BRIEFING 2020년 9월 21일 [www.oxfam.org](http://www.oxfam.org)**

**<탄소 불평등에 직면하다-기후정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핵심>**

<나>는 옥스팜의 보도자료이다. 이 자료는 1990~2015년 사이 탄소배출량이 2배나 증가하였고, 그 주요 원인이 부유층과 빈곤층 사이의 탄소배출량 차이, 즉 탄소불평등에 있음을 밝힌다. 그리고 현재 추세가 지속될 시 2030년에는 파리 협정의 '1.5도 목표' 탄소예산이 모두 소진될 것임을 경고한다. 따라서 탄소불평등에 기반을 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탄소불평등을 해소하고 고급 탄소세를 부과하거나 공공 정책들을 통해 공적 영역을 확장해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시문 <다> : 케이트 레이워스 『도넛 경제학』 학교재, 2018, 12-14쪽**

**사이토 고헤이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다다서재, 2021, 104-106쪽**

<다>는 케이트 레이워스의 『도넛 경제학』 모델을 설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인류가 '지속 가능한 미

래'를 가능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생태적 한계'와 '사회적 기초'의 균형이 제시되고 있다. '생태적 한계'란 인류가 살아갈 터전인 지구의 생명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하며, '사회적 기초'란 물과 식량, 에너지 등 인간 삶의 기초를 말한다. 이에는 경제적 안정과 평등, 공정 개념이 포함된다. 그런데 이 '생태적 한계'와 '사회적 기초'는 기후 위기 관점으로 볼 때, 전지구적 과정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현재 선진국이 주도하는 기술 개발이 개발도상국가들의 '사회적 기초'를 파괴하는 책임의 전가가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 ■ 논제의 구성

### 1. <가>와 <나>에서 제시한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의 차이점을 기술하시오. (300±30자)

#### (전제)

전 세계의 심화되는 기후 위기에 대해 지속 가능한 미래 대책을 내고 있다.  
(탄소세와 탄소 예산 등 각국 정부의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 (차이점)

- <가>는 기본적으로 기후 위기를 '기술'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고 낙관하고 있다.
- <나>와 비교해 볼 때,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의 정책이 기술 개발과 기업 지원에 치우쳐져 있다.
- <나>는 기후 위기의 주범으로 기후불평등을 지목하고 있다.
- <나>는 탄소예산이 소수의 부유층에 의해 고갈되고 있는 이러한 불평등 해소 없이는 환경 위기는 극복되기 어렵다고 말한다. 따라서 고급 탄소세를 부과하고, 공공정책을 통해 탄소 배출량을 줄여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중보건을 증진시킬 것을 주장한다.
- <가>는 결론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반면, <나>는 현재의 기후 위기 대책으로서의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은 그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한다.

### 2. <다>와 <그림 1>을 활용하여, <가> 주장의 한계에 대해 설명하시오. (600±60자)

#### <그림 1> 설명

- 1990년에서 2015년 사이 전 세계 인구의 상위 10%가 총 탄소 배출량의 52%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전 세계 탄소예산의 3분의 1(31%) 가량을 사용했다. 최상위 1% 부유층은 총 탄소 배출량만 15%에 달하며, 탄소예산의 9%를 차지하고, 이는 하위 50% 예산의 두 배다.
- 하위 50% 빈곤층은 총 탄소 배출량의 7%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사용 가능한 탄소예산 중 4%만을 사용했다.
- 이러한 통계들을 바탕으로 탄소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을 설명한다.

#### <다>의 주장

- 케이트 레이워스의 '도넛 경제 모델'은 인류와 지구 전체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제안되었다.
- 이 기본적인 생각을 간단히 정리하면, 도넛 모양의 바깥쪽 원은 '생태적 한계'를 나타내며, 안쪽 원은 '사회적 기초'를 나타낸다.
- 이 생태적 한계와 사회적 기초 사이에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포함되는 전 세계적인 경제체제를 설계해야 공정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 '생태적 한계'와 '사회적 기초'는 전지구적 과정으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 이 경제 모델의 의의는 경제적 불안정과 불평등을 해소하여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과 지구의 환경 위기를 막는 것은 모두 불가결하게 필요하며 이 양자를 균형있게 결합해 가야 지속가능한 미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데에 있다.
- 이는 <나>의 기후 위기의 책임이 탄소불평등으로 인해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으로 뒷받침된다.
- 또한 이것은 <다>로 볼 때, 신재생에너지 기술 및 사업은 새로운 환경파괴를 낳고 있다는 점과 연결된다.
- 따라서 <가>는 '생태적 한계'만을 극복 방향으로 사고하고 있을 뿐, '사회적 기초'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가>가 주장하는 기술 개발로 인해 환경 위기를 극복할 낙관적 방향도 '사회적 기초'를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소수의 기업과 사람만을 위한 정책이 될 위험성이 크다.

**6. 채점 기준**

| 하위 문항 | 채점 기준  | 배점 |
|-------|--|----|
| 1-1   | <p>■ 답안의 구성요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답안이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li> <li>- 답안 구성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인가.</li> <li>- 답안의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li> </ul> <p>■ 논제에 대한 답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p> <p>【기후위기에 대한 제시문임을 기술】</p> <p>① 전 세계의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대해 지속 가능한 미래 대책을 내고 있다. (탄소세와 탄소 예산 등 각국 정부의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p> <p>【제시문 &lt;가&gt;의 대응】</p> <p>② &lt;가&gt;는 기본적으로 기후 위기를 '기술'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고 낙관하고 있다. &lt;나&gt;와 비교해 볼 때,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의 정책이 기술 개발과 기업 지원에 치우쳐져 있다.</p> <p>【제시문 &lt;나&gt;의 대응】</p> <p>③ &lt;나&gt;는 환경 위기의 주범으로 기후불평등을 지목하고 있다.</p> <p>④ &lt;나&gt;는 탄소예산이 소수의 부유층에 의해 고갈되고 있는 이러한 불평등 해소 없이는 환경 위기는 극복되기 어렵다고 말한다. 따라서 고급 탄소세를 부과하고, 공공정책을 통해 탄소 배출량을 줄여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중보건을 증진시킬 것을 주장한다.</p> <p>⑤ &lt;가&gt;는 결론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반면, &lt;나&gt;는 현재의 기후 위기 대책으로서의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p> <p>&lt;유의 사항&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자 수 200자 이내 답안은 0점 처리함.</li> <li>-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 처리함.</li> </ul> |    |

|                                      |     |
|--------------------------------------|-----|
|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충족한 경우             | 1등급 |
| ①, ②, ③, ④를 충족하고, ⑤가 부족한 경우          | 2등급 |
| ①, ②, ③, ④를 충족하였으나 '차이점' 설명이 불충분한 경우 | 3등급 |
| ①, ②, ③을 충족하고, ④가 부족한 경우             | 4등급 |
| ①, ③, ④를 충족하고, ②가 부족한 경우             | 5등급 |
| ①, ③, ④를 충족하고, ②가 부족하면서 논리성이 불충분한 경우 | 6등급 |
| ①, ②를 충족하고 ③, ④가 부족한 경우              | 7등급 |
| ①, ②, ③, ④, ⑤가 모두 부족한 경우             | 8등급 |
| 글자 수가 모자라거나,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경우      | 9등급 |

※ 하위 문항이 있는 경우 칸을 나누어 채점 기준을 작성함.

※ 채점 기준은 문항의 출제의도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이어야 함.

| 하위 문항 | 채점 기준   | 배점 |
|-------|---|----|
| 1-2   | <p>■ 답안의 구성요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답안이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li> <li>- 답안 구성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인가.</li> <li>- 답안의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li> </ul> <p>■ 논제에 대한 답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p> <p>【&lt;그림 1&gt;의 내용 파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계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능력 측정</li> <li>① 탄소불평등에 대한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0년에서 2015년 사이에 탄소 배출량이 그 전과 비교하여 두 배나 상승했다.</li> <li>- 그런데 전세계 인구의 상위 10%가 총 탄소 배출량의 52%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전세계 탄소예산의 3분의 1(31%) 가량을 사용했다. 최상위 1% 부유층은 총 탄소 배출량만 15%에 달하며, 탄소예산의 9%를 차지하고, 이는 하위 50% 예산의 두 배다.</li> <li>- 하위 50% 빈곤층은 총 탄소 배출량의 7%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사용 가능한 탄소예산 중 4%만을 사용했다.</li> <li>- 이러한 통계들을 바탕으로 탄소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을 설명한다.</li> </ul> </li> </ul> <p>【제시문 &lt;다&gt;의 논지 파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시문 &lt;다&gt;에서 주장하는 논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 측정</li> <li>② '도넛 경제 모델'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케이트 레이워스의 '도넛 경제 모델'은 인류와 지구 전체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제안되었다.</li> <li>- 이 기본적인 생각을 간단히 정리하면, 도넛 모양의 바깥쪽 원은 '생태적 한계'를 나타내며, 안쪽 원은 '사회적 기초'를 나타낸다.</li> <li>- 이 생태적 한계와 사회적 기초 사이에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포함되는 전 세계적인 경제체제를 설계해야 공정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li> </ul> </li> <li>③ '도넛 경제 모델'의 의미를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태적 한계'와 '사회적 기초'는 전지구적 과정으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li> </ul> </li> </ul> |    |

- 이 경제 모델의 의의는 경제적 불안정과 불평등을 해소하여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과 지구의 환경 위기를 막는 것은 모두 불가결하게 필요하며 이 양자를 균형있게 결합해 가야 지속가능한 미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데에 있다.

【제시문 <다>와 <그림 1>을 활용하여 <가>에 적용】

- ④ 제시문들과 통계를 근거로 다른 제시문 주장에 대해 정확하게 비판하는 능력을 평가함.  
- 이는 <나>의 기후 위기의 책임이 탄소 불평등으로 인해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으로 뒷받침된다.  
- 또한 이것은 <다>로 볼 때, 신재생에너지 기술 및 사업은 새로운 환경파괴를 낳고 있다는 점과 연결된다.
- ⑤ 핵심적 주장을 강조할 수 있어야 함.  
- 따라서 <가>는 '생태적 한계'를 기술적 관점에서만 극복 방향으로 사고하고 있을 뿐, '사회적 기초'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가>가 주장하는 기술 개발로 인해 환경 위기를 극복할 낙관적 방향도 '사회적 기초'를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소수의 기업과 부유층만을 위한 정책이 될 위험성이 크다.

<유의 사항>

- 글자 수 400자 이내 답안은 0점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 처리함.

|                                 |     |
|---------------------------------|-----|
|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충족한 경우        | 1등급 |
| ①, ②, ③, ④를 충족하고, ⑤가 부족한 경우     | 2등급 |
| ①, ②, ③, ④를 충족하고, 논리성이 부족한 경우   | 3등급 |
| ②, ③, ④를 충족하고, ①과 ⑤가 부족한 경우     | 4등급 |
| ①, ②, ③을 충족하고, ④, ⑤가 부족한 경우     | 5등급 |
| ①, ②, ③을 충족하고, 논리성이 부족한 경우      | 6등급 |
| ②, ③, ④가 모두 부족한 경우              | 7등급 |
| ①, ②, ③, ④가 모두 부족한 경우           | 8등급 |
| 글자 수가 모자라거나,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경우 | 9등급 |

※ 하위 문항이 있는 경우 칸을 나누어 채점 기준을 작성함.

※ 채점 기준은 문항의 출제의도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이어야 함.

## 7. 예시 답안

### 1-1.

제시문 <가>와 <나>는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가>는 기후 위기를 기술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낙관하고 있으며, 그 정책이 기술 개발과 기업 지원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에 비해 <나>는 환경 위기의 주범으로 탄소불평등을 지목하고 있다. 탄소예산이 소수의 부유층에 의해 고갈되고 있는 탄소불평등의 해소 없이는 환경 위기가 극복되기 어렵기에 이를 해소할 공공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가>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반면 <나>는 현재의 기후 위기 대책으로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은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 1-2.

제시문 <다>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도넛 경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도넛 모양의 바깥쪽은 '생태적 한계'를 나타내며, 안쪽은 '사회적 기초'를 나타낸다. 그리고 '생태적 한계'와 '사회적 기초'는 전 지구적 과정으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 경제 모델은 '지구의 환경 위기를 막는 것'과 '불평등 해소를 통해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균형있게 결합해야만 지속가능한 미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그런데 <그림 1>을 보면 1990~2015년 사이 총 탄소 배출량의 52%를 부유층 10%가 차지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최상위 부유층 1%는 총 탄소 배출량 15%, 탄소예산의 9%에 책임이 있다. 그에 비해 하위 50% 빈곤층은 총 탄소 배출량의 7%과 탄소예산 4%에만 책임이 있는 바, 탄소불평등이 심각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가>는 '생태적 한계'를 기술적 관점에서만 사고하고 있을 뿐 '사회적 기초'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가>에서 주장하는 '기술 개발을 통해 환경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 역시 새로운 환경 위기를 야기해 사회적 기초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다>가 주장하는 기후위기 대책을 충족시키지 못하며, 결과적으로 소수의 기업과 부유층만을 위한 정책이 될 위험성이 크다.



## 문항카드 ② <인문계열 1회차 2번 문항>

### 1. 일반정보

|                      |   |                                 |
|----------------------|---|---------------------------------|
| 유형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                                 |
| 전형명                  | 202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  |                                 |
|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 인문계열(1회차) / 문항 (2-1, 2-2)   |                                 |
| 출제 범위                | 교육과정 과목명  | 생활과 윤리, 통합사회, 사회·문화             |
|                      | 핵심개념 및 용어   | 민주주의, 자유주의, 시민 윤리, 사회적 약자, 능력주의 |
| 예상 소요 시간             | 50분 / 전체 100분   |                                 |

### 2. 문항 및 자료

#### 계 열 문 항 2

<가>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타인의 허락을 구하거나 그의 의지에 구애받지 않고, 인간의 이성이라는 자연법의 테두리 안에서 스스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신체와 소유물을 처분하고 행동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의 상태에 있다. 이 자연 상태는 또한 그 안에서 모든 권력과 권한이 호혜적이며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평등의 상태이다. 자연 상태의 사람들은 재산 상에서 평등하며, 어떤 종류의 지배-종속 관계도 없이 만인은 그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 상태는 무질서와 방종의 상태가 아니다. 거기에는 자연의 법이 있으며, 바로 이 법인 이성은 모든 인류에게, 인간은 평등하고 독립적인 존재자이므로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명·건강·자유 또는 소유물에 해를 끼쳐서는 안된다고 가르친다.

자연 안에서 태어나 자연에서 먹고 마실 것, 입을 것과 쉴 곳을 구하는 신체를 지닌 존재로서 인간에게 자연은 삶의 공동의 터전이다. 자연적 이성은 인간이 일단 태어나면 자신의 보존을 위한 권리, 그러니까 고기를 먹고 음료를 마시고, 여타 자연이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제공하는 것들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고 알려 준다. 세계를 인류에게 공유물로 준 신은 사람들에게 또한 그것을 삶에 최대한 이득이 되고 편익이 되도록 이용할 이성도 주었다. 따라서 사람들이 노동을 통하여 자연으로부터 최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자연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것으로 이는 자연적 이성에 부합하는 일이다. 근면한 자들은 토지를 개간하여 자연 그대로였던 때보다 수십 배 수백 배의 식품과 옷감을 얻었으며, 그것으로 인류는 유용한 생활필수품을 충당했다. 그런 만큼 각자의 능력에 기반한 노동을 통하여 자연의 가치를 높인 사람이 그 이득을 더 많이 차지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

<나> 돌봄이 인간 삶의 기본적인 측면으로 인식되어 모든 정치 이론이 돌봄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민주주의에서 돌봄의 위상은 어떻게 될까? 우리의 삶에서 돌봄이 중심적 위치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민주주의를 추구하고자 한다면, 민주정치는 모든 시민이 돌봄 문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의 분담을 논의의 중심에 두어야만 한다. 돌봄민주주의는 돌봄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가 되어야 하며, 돌봄의 실천과 책임 분배가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민주적 돌봄 윤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동안 많은 학자가 주장해온 바와 같이, 돌봄 윤리가 전제하는 인간관은 기존의 민주정치 담론과는 다른 출발선에서 시작한다. 돌봄 윤리의 관점에서 보면 개인은 관계 안에서의 존재로 인식된다. 개인과 그들의 자유는 여전히 매우 중요할 수 있지만, 그 개인을 마치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하는 로빈슨 크루소처럼 바라보는 시각은 이치에 맞지 않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취약한 존재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취약할 수 있으며, 모든 사람은 삶의 일정 구간에서 신생아나 고령자로서 또는 질병 때문에 극도로 취약한 삶의 구간을 지나게 된다. 사람은 끊임없이 신체 조건이 변화하여 일정한 시기에는 타인의 돌봄과 조력에 의지해야만 한다. 또한 모든 인간은 돌봄의 수혜자이자 제공자이다. 사람은 일생을 통해 돌봄의 필요와 능력이 변화하기는 해도 언제나 돌봄을 주고받는 상호의존적 존재이다. 건장한 성인도 매일 스스로를 돌보거나 타인의 돌봄을 받는다. 한 사회 안에는 돌봄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과 타인을 잘 도울 수 있는 사람이 공존한다. 돌봄의 능력과 필요의 처지가 상반되게 변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시간을 통해 변해가는 과정이다. 이렇듯 인간 모두가 필연적으로 연루되는 사회적 관계망으로 돌봄을 이해한다면, 돌봄의 가치는 궁극적으로 공적 가치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우리의 삶에 돌봄이 없다면 사회도 존속할 수 없다.

독일에서는 2010년대에 접어든 이래로 돌봄의 사회적 관계망에 기초해 경쟁사회를 연대사회로 변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돌봄 혁명(Care-Revolution)' 논의가 꾸준히 진행 중이다. 한 사회의 무게중심을 이윤의 극대화가 아니라 인간의 필요와 돌봄으로 옮기고자 하는 이 논의는 인간과 인간이 경쟁자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개별적인 삶을 새로운 공동체로 연결하고 구축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 집에서는 할머니를 돌보고 집안일을 해요. 그러다 보면 학교에서는 피곤해서 수업 시간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학교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냐고요? 여러 의견이 있지만, 주변에서는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늘리고 능력을 키우라고 하죠. 그게 사회에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요. 이해해요. 하지만 집에 계신 제 할머니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요. 걷지 못하고, 밥을 먹을 수도 없고, 물론 그전에 밥을 차릴 수 없고요. 그 과정에서 이중 잣대라고 해야 할지, 모순적인 상황에 처하게 돼요. 학교는 경쟁을 통한 능력 향상을 중시하지만, 집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할머니는 보살핌을 필요로 할 뿐, 능력을 키우거나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날 일은 없으니깐요.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마음속에서 갈등이 생겨요. 내 가족이 할 수 없는 일이 점점 늘어나는데, '가치가 없는 사람일까'라는 생각이 서서히 싹트죠. 그렇지만 누군가는 할머니를 돌보아야 하지 않나요. 돌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이런 모순에 가장 많이 직면하는 사람이 '영 케어러' 아닐까요.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면 이해하는 면도 있겠지만, 어릴 때는 어느 쪽이 좋은지 고민하죠.... 고등학생 때는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생각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성적을 올리라고, 능력을 키우라고 하죠. 그렇지만 집에 계신 할머니는 능력이 줄어가도 주변 사람들이나 사회가 질책하지 않아요. 대립하는 두 가치관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별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노인은 그런 법이라고 얼버무리죠. 저는 그 모순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봐요. 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엄청난 스트레스였어요. 나는 능력을 키워가고 그러면 좋은 평가도 받겠지만, 집에 함께 사는 사람은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도 질책을 받지 않고, 질책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대체...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없어도 그걸 비난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배척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한다면, 저 역시 능력을 키우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을 긍정하고 존중할수록 '그럼 내 학업과 학교생활은 대체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를 중도에 그만두고 나서는 한쪽 가치관이 보이지 않는 곳이 생겼어요. 그래요... 마음이 아주 편했어요. 고민을 하나로 줄일 수 있으니깐요. 눈앞의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 되니까. 모순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게....

\* 영 케어러(young carer): 고령이나 만성질환, 장애, 정신적 문제, 알코올/약물 의존 등이 있는 가족을 직접 돌보는 18세 미만 청소년을 지칭하는 용어.

2-1. <가>와 <나>에 나타난 인간관을 비교하시오. (300±30자)

2-2. <다>에서 '영 케어러'가 처한 문제적 상황을 설명하고, <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 대응 방향을 서술하시오. (600±60자)

3. 출제 의도

최근 코로나 팬데믹 국면에서 야기된 '돌봄 위기'는 이제껏 우리 사회가 간과하고 배제해온 돌봄의 가치에 주목하는 계기가 되었다. 모든 것이 멈춰도 인간의 삶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결코 멈출 수 없는 필수노동으로서 돌봄이 가시화되면서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확산된 것이다. [계열문항 1-2]에서는 근래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돌봄민주주의의 관점에 입각해 민주주의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비판적으로 사고하도록 출제되었다.

제시문 <가>는 로크의 『통치론』에 나타난 자유주의적 인간관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시문 <나>는 돌봄민주주의의 대표적 논자인 조안 C. 트론토의 핵심적 주장과 그 근거가 되는 돌봄 윤리의 인간관을 담고 있다. 제시문 <다>에서는 돌봄을 둘러싼 역할 갈등과 가치관 대립이 문제상황으로 드러난 구체적 현실 사례로서 '영 케어러'의 인터뷰를 제시하였다 수험생들에게는 각각의 제시문의 요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독해력과 함께, 이들 내용을 종합적으로 연결지어 사고할 수 있는 논리적·비판적 사고력이 요구된다.

<가>가 제시하는 독립적·자율적 인간관과는 달리, <나>의 돌봄민주주의는 인간을 근본적으로 상호의존적 존재로 보고 돌봄의 공적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돌봄에 참여하는 민주주의 사회를 구축하자고 제안한다. 이러한 <나>의 관점을 <다>의 구체적인 현실 사례에 적용해봄으로써, 능력주의적 가치관의 한계를 성찰하고 돌봄을 중심으로 인간과 공동체를 사유해볼 수 있도록 하였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         |   |                        |
|---------|---|------------------------|
| 적용 교육과정 | 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 중 생활과 윤리<br>2.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중 통합사회<br>3.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중 사회·문화   |                        |
| 관련 성취기준 | 1. 교과명: 도덕과 교육과정<br>과목명: 생활과 윤리<br>(1) 현대의 삶과 실천 윤리<br>• [12생윤01-02] 이 성취기준의 취지는 첫째, 학생들이 동서양의 다양한 윤리 이론들을 살펴봄으로써 윤리 이론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윤리 문제와 쟁점들을 탐구하는 밑바탕이 됨을 이해하고 다양한 이론들에 따른 탐구의 결과를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윤리 이론들을 바탕으로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윤리 문제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안목을 기르고 자신의 윤리적 관점을 형성하여 일상의 윤리 문제를 성찰함으로써 새로운 윤리적 실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다. | 관련<br><br>제시문 <가>, <다> |

2. 교과명: 사회과 교육과정

| 교과명: 통합사회     |   | 관련                |
|---------------|---|-------------------|
| 성취<br>기준<br>1 | <p>(6) 사회 정의와 불평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통사06-01]에서는 정의의 실질적 기준으로서 업적, 능력, 필요 등을 사회의 다양한 영역이나 분야에 적용함으로써 그 장단점을 다루도록 한다.</li> <li>[10통사06-02]에서는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을 바탕으로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에 대한 의무, 사익과 공익(공동선)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탐구하도록 한다.</li> <li>[10통사06-03]에서는 사회 계층의 양극화, 공간 불평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등의 사례를 조사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 복지 제도, 지역 격차 완화 정책, 적극적인 우대 조치 등을 다루도록 한다.</li> </ul> | 제시문 <가>, <나>, <다> |

3. 교과명: 사회과 교육과정

| 교과명: 사회·문화    |  | 관련           |
|---------------|--|--------------|
| 성취<br>기준<br>1 | <p>(4) 사회 복지와 복지 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2사문04-03]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 성 불평등, 빈곤의 양상과 그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을 탐색한다. 특히 사회적 소수자는 인종, 민족, 국적, 신체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규정될 수 있다는 점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li> </ul> | 제시문 <나>, <다> |

나) 자료 출처

| 교과서 외 | 자료명(도서명)                       | 작성자(저자)   | 발행처         | 발행 연도 | 쪽수      | 관련 자료   | 재구성 여부 |
|-------|--------------------------------|-----------|-------------|-------|---------|---------|--------|
|       | 「존 로크의 「통치론 제2논고」와 자유민주주의의 문제」 | 백종현       | 『철학논구』 제26집 | 1998  | 14-16   | 제시문 <가> | ○      |
|       | 『돌봄민주주의』                       | 조안 C. 트론토 | 박영사         | 2014  | 77-87   | 제시문 <나> | ○      |
|       | 『영 케어러: 돌봄을 짊어진 아동·청년의 현실』     | 시부야 도모코   | 황소걸음        | 2021  | 121-123 | 제시문 <다> | ○      |

| 관련 교과서 근거 |       |     |       |         |         |        |
|-----------|-------|-----|-------|---------|---------|--------|
| 도서명       | 저자    | 발행처 | 발행 연도 | 쪽수      | 관련 자료   | 재구성 여부 |
| 생활과 윤리    | 정창우 외 | 미래엔 | 2018  | 95-102  | 제시문 <가> | ○      |
| 통합사회      | 최원희 외 | 미래엔 | 2018  | 170-175 | 제시문 <나> | ○      |

## 5. 문항 해설

### ■제시문 요약

- 제시문 <가> : 백종현, 「존 로크의 「통치론 제2논고」와 자유민주주의 문제」, 『철학논구』 제26집, 1998, 14-16. (발췌 재구성)

제시문 <가>는 로크의 『통치론』에 제시된 인간관이다. 이에 따르면 인간은 이성이라는 자연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신체와 소유물을 처분하고 행동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의 상태에 있다. <가>는 자연 상태에서 독립적이며 자율적인 개인을 상정하며, 개인들 사이의 관계는 호혜적이고 상호 평등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스스로의 이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행동하며, 독립된 노동 주체로서 노동에 따른 대가를 소유할 권리를 지닌다. 그런 만큼 각자의 능력에 기반한 노동을 통하여 가치를 창출한 사람이 더 많은 이익을 차지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라고 <가>는 주장한다.

- 제시문 <나> : 조안 C. 트론토 (김희강·나희강 옮김) 『돌봄민주주의』, 박영사, 2014, 77-87. (발췌 재구성)

<나>는 돌봄민주주의의 대표적 논자인 조안 C. 트론토의 글이다. 이 글은 돌봄민주주의의 주장과 민주적 돌봄 윤리를 설명하고, 돌봄민주주의의 가치에 입각한 구체적 사례로서 독일의 '돌봄 혁명'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돌봄민주주의의 중심 주장은 '돌봄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주장은 돌봄의 실천과 책임 분배가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민주적 돌봄 윤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돌봄 윤리가 전제하는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은 누구나 관계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으며, 생애 주기나 질병으로 인한 취약성을 지닌 존재로서 서로 돌봄을 주고 받는 상호의존적 존재이다. 따라서 돌봄의 가치는 보편적인 공적 가치임을 이 글은 강하게 주장한다.

- 제시문 <다> : 시부야 도모코, 『영케어러: 돌봄을 짊어진 아동·청년의 현실』, 황소걸음, 2021, 121-123. (발췌 재구성)

<다>는 영 케어러의 실태를 말해주는 인터뷰 자료이다. 이 대목은 할머니를 간병해야 하는 청소년이 등교 거부에 빠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영 케어러인 화자는 학업과 돌봄을 병행하는 데 따르는 물리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노력과 경쟁을 통한 개인의 능력 향상을 중시하는 '학교'의 가치관과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가는 할머니를 돌보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두는 '집'의 가치관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 ■논제의 구성

#### 1. <가>와 <나>에 나타난 인간관을 비교하시오. (300±30자)

- 제시문 <가>의 인간관
- <가>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스스로의 이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독립적 개인을 상정하며, 개인들 사이의 관계는 호혜적이고 상호 평등하다.
- 인간은 독립된 노동 주체로서 각자의 능력에 따라 노동하고 그 대가를 소유할 권리를 지닌다. 그런

만큼 각자의 능력에 기반한 노동을 통하여 더 많은 이익을 차지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라고 <가>는 주장한다.

· 제시문 <나>의 인간관

- <나>가 제시하는 인간상에 따르면 인간은 누구나 관계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으며, 보편적으로 타인의 돌봄을 필요로 하고, 생애 주거나 질병으로 인한 취약성을 지니므로 타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호의존적 존재이다.

· <가>와 <나>의 인간관 비교

- 제시문 <나>에 따르면 이러한 <가>의 자유주의적 인간관은 '의존성'이라는 인간 보편의 조건을 반영하지 못한다. <가>는 개인의 능력에 따른 가치 창출의 소유를 허용하는 능력주의적 인간관인 데 비해, <나>는 상호의존성과 상호 돌봄을 인간의 보편적 특성으로 규정하는 인간관이다.

**2. <다>에서 '영 케어러'가 처한 문제적 상황을 설명하고, <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 대응 방향을 서술하시오. (600±60자)**

· <다>의 '영 케어러'가 처한 문제적 상황

- <다>의 '문제적 상황'은 일차적으로 돌봄과 학업을 병행할 수 없다는 개인 차원의 역할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 더 나아가 이 문제상황은 '학교'와 '집'에서 작동하는 '대립하는 두 가치관'의 충돌로 인해 나타나고 있다. 노력과 경쟁을 통한 개인의 능력 향상을 중시하는 '학교'의 능력주의적 가치관은, 자립할 능력이 없는 가족을 돌보는 데에 큰 가치를 두는 '집'의 가치관과 양립하기 어렵다.

- 이 때문에 영케어러는 경쟁과 돌봄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만 하는 모순적 상황에 직면한다.

· 돌봄민주주의적 대응 방향

- '영 케어러'가 개인적 차원에서 겪는 역할 갈등은, 제시문 <나>가 제안하는 돌봄의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돌봄민주주의는 '돌봄'을 중심적 가치로 두면서 모든 민주 시민이 돌봄에 참여하는 상호책임과 협력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한다.

- 또한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인간의 의존성을 흠결로 규정하지만, 돌봄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인간은 상호의존적 존재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각자의 개별적인 삶을 공동체로 연결시키고, 경쟁사회를 연대사회로 변화시킬 것을 촉구한다. 돌봄민주주의는 독일에서의 '돌봄 혁명' 논의처럼 이와 같은 가치관의 전환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6. 채점 기준**

| 하위 문항 | 채점 기준   | 배점 |
|-------|---|----|
| 2-1   | <p>[문항 1-1] &lt;가&gt;와 &lt;나&gt;에 나타난 인간관을 비교하시오. (300±30자)</p> <p>■ 답안의 구성요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답안이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li> <li>- 답안 구성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인가.</li> <li>- 답안의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li> </ul> |    |

|  |  |     |
|--|--|-----|
|  | <p>■ 논제에 대한 답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p> <p><b>【제시문 &lt;가&gt;의 인간관에 대해 요약되어야 함】</b></p> <p>①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스스로의 이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독립적 개인을 상정하며, 개인들 사이의 관계는 호혜적이고 상호 평등함.</p> <p>② 인간은 독립된 노동 주체로서 각자의 능력에 따라 노동한 대가를 소유할 권리를 지니며, 그런 만큼 각자의 능력에 기반한 노동을 통하여 더 많은 이익을 차지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라고 주장함.</p> <p><b>【제시문 &lt;나&gt;의 인간관에 대해 요약되어야 함】</b></p> <p>③ 인간은 누구나 관계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으며, 보편적으로 타인의 돌봄을 필요로 하고, 생애 주거나 질병으로 인한 취약성을 지니므로 타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호의존적 존재임.</p> <p><b>【&lt;가&gt;와 &lt;나&gt;의 인간관을 서로 비교해야 함】</b></p> <p>④ &lt;나&gt;에 따르면 &lt;가&gt;의 자유주의적 인간관은 ‘의존성’이라는 인간 보편의 조건을 반영하지 못함. &lt;가&gt;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가치 창출의 소유를 허용하는 능력주의적 인간관인 데 비해, &lt;나&gt;는 상호의존성을 인간의 보편적 특성으로 규정하는 인간관임.</p> <p>&lt;유의 사항&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자 수 200자 이내 답안은 0점 처리함.</li> <li>-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 처리함.</li> </ul> |     |
|  | ①, ②, ③, ④ 모두를 충족하고, 우수한 표현력을 보여준 경우   | 1등급 |
|  | ①, ②, ③, ④ 모두를 충족했지만, 문장과 정서법(正書法) 등 표현이 부족한 경우  | 2등급 |
|  | ①, ②, ③을 충족했지만, ④를 부분적으로 충족하지 못한 경우  | 3등급 |
|  | ①, ③, ④를 충족했지만, ②를 부분적으로 충족하지 못한 경우  | 4등급 |
|  | ①과 ③을 충족했지만, ②와 ④를 부분적으로 충족하지 못한 경우  | 5등급 |
|  | ①을 충족했지만, ②, ③, ④를 부분적으로 충족하지 못한 경우  | 6등급 |
|  | 문항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논리적 구성 능력이 현저히 부족할 경우   | 7등급 |
|  | 문항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논리적 구성 능력 및 문장 표현 능력이 현저히 부족할 경우  | 8등급 |

| 하위 문항 | 채점 기준  | 배점 |
|-------|--|----|
| 2-2   | <p><b>[문항 1-2] &lt;다&gt;에서 ‘영 케어러’가 처한 문제적 상황을 설명하고, &lt;나&gt;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 대응 방향을 서술하시오. (600±60자)</b></p> <p>■ 답안의 구성요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답안이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li> <li>- 답안 구성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인가.</li> <li>- 답안의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li> </ul> |    |

■ 문제에 대한 답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의 ‘영 케어러’가 처한 문제적 상황에 대해 설명해야 함】**

- ① 영 케어러는 경쟁(학업)과 돌봄 사이에서 어느 한 쪽을 선택해야만 하는 모순적 상황임.
- ② 이와 같은 ‘문제적 상황’은 일차적으로 돌봄과 학업을 병행할 수 없다는 데에서 기인함. ‘학교’와 ‘집’에서 작동하는 ‘대립하는 두 가치관’의 충돌로 인해 나타나고 있으며, 노력과 경쟁을 통한 개인의 능력 향상을 중시하는 ‘학교’의 능력주의적 가치관은 자립할 능력이 없는 가족을 돌보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두는 ‘집’의 가치관과 양립하기 어려움.

**【<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적 상황에 대한 대응 방향을 서술해야 함】**

- ③ ‘영 케어러’가 개인적 차원에서 겪는 역할 갈등은 제시문 <나>가 제안하는 돌봄의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
- ④ 돌봄민주주의는 돌봄의 공적 가치를 인정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돌봄의 제공자이자 수혜자로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실천적 책임을 수행할 것을 주장함. 또한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존재를 흠결을 지닌 존재로 판단하지만, 돌봄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인간은 상호의존적 존재라고 주장함. 이처럼 각자의 개별적인 삶을 공동체로 연결시키는 변화, 경쟁사회에서 연대사회로의 변화가 필요하며, 독일에서의 ‘돌봄 혁명’ 논의처럼 가치관의 전환이 필요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혜나 개인적 미덕의 관점에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서술한 경우는 정답으로 간주하지 않음.)

<유의 사항>

- 글자 수 400자 이내 답안은 0점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 처리함.

|   |     |
|---|-----|
| ①, ②, ③, ④를 모두 충족하고 우수한 표현력을 보여준 경우                 | 1등급 |
| ①, ②, ③, ④를 충족했지만, 문장과 정서법(正書法) 등 표현이 부족한 경우        | 2등급 |
| ①, ②, ③를 충족했지만, ④가 부족한 경우                           | 3등급 |
| ①, ③, ④를 충족했지만, ②가 부족한 경우                           | 4등급 |
| ①과 ③을 충족했지만, ②와 ④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 5등급 |
| ①을 충족했지만, ②, ③, ④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 6등급 |
| 문항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논리적 구성 능력이 현저히 부족할 경우            | 7등급 |
| 문항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논리적 구성 능력 및 문장 표현 능력이 현저히 부족할 경우 | 8등급 |
| 글자 수가 모자라거나,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경우                     | 9등급 |

## 7. 예시 답안

### 2-1.

제시문 <가>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독립적이며 자율적인 개인을 의미하며, 개인 간의 관계는 호혜적이고 평등하다. 이들은 스스로의 이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행동하며, 독립된 노동 주체로서 각자의 능력에 기반한 노동에 따른 대가를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그런데 제시문 <나>에 따르면 이러한 자유주의적 인간관은 '의존성'이라는 인간 보편의 조건을 반영하지 못한다. <나>가 제시하는 인간상에 따르면 인간은 누구나 관계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으며, 보편적으로 타인의 돌봄을 필요로 하고, 생애 주기나 질병으로 인한 취약성을 지니므로 타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호의존적 존재이다.

### 2-2.

제시문 <다>에서 영 케어러는 경쟁과 돌봄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만 하는 모순적 상황에 직면했다. 이러한 상황은 영 케어러가 돌봄과 학업을 병행할 수 없는 데에서 기인한 '역할 갈등'으로 볼 수 있다. 노력과 경쟁을 통한 개인의 능력 향상을 중시하는 학교의 능력주의적 가치관과, 자립할 능력이 없는 가족을 돌보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두는 집에서의 가치관이 충돌해서 발생한 문제적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시문 <나>에서 제안한 돌봄민주주의 가치관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존재를 불완전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과는 달리 돌봄민주주의에서는 인간을 본질적으로 상호의존적 존재로 인식한다. 그래서 돌봄민주주의는 돌봄의 공적 가치를 인정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돌봄의 제공자이자 수혜자로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실천적 책임을 수행할 것을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처럼 돌봄이 공공재로서 존재했다면 영 케어러는 역할 갈등에 빠지지 않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었을 것이다. 독일의 '돌봄혁명'과 같은 가치관 전환을 위한 노력을 통해 각자의 개별적인 삶을 공동체로 연결시키고, 경쟁사회를 연대사회로 변화시킨다면 제시문 <다>와 같은 '문제적 상황'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